

KEIMYUNG BRIDGE

Creative Academic Magazine 계명대학교 소식지

2024 Spring+Summer Vol.81

창립 125주년 특집호

KEIMYUNG BRIDGE

125TH ANNIVERSARY
SPECIAL ISSUE



축하메시지

04 계명대학교 창립125주년 축하메시지

125TH SPECIAL THEME

06 사진으로 보는 125주년의 발자취

10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인터뷰

14 성서이전사 연구편찬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인터뷰

계명사유

16 제1회 계명극재회화상 수상자, 김서을 작가

글로벌 계명

20 '계명대-우즈베키스탄'의 문화예술 교류, 그 현장 속으로

계명 RE;SPEC

26 20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김작가TV, 김도윤 동문

CAMPUS LIFE

30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기념 오페라 '나부코'

KMU FRONTIER

34 미국으로 건너가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다, 김유빈 동문

KMU COLUMN

38 [건강 기고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KMU NEWS

48 KMU DONATION

10

125TH
SPECIAL THEME



16

계명사유



20

글로벌
계명



30

CAMPUS
LIFE



46

KMU
DONATION



Spring+Summer
2024
vol. 81

발행인 신일희

발행처 계명대학교 대외협력처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6031-4 FAX 053-580-6035 E-mail hongbo@kmu.ac.kr

발행일 2024년 05월 17일

편집 계명대학교 대외홍보팀

기획·디자인 상상146 053-352-0314

계명대학교 창립125주년 축하메시지

1

1899년 제중원을 시작으로 올해로
계명대학교가 창립 125주년을
맞이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125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계명대학교가 이제 새로운
125년을 향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국제경영학과(IB) 2학년 김도연

우리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축하합니다! 계명의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5

국제통상학과 3학년 이정민

우리 계명대학교의 창립
125주년을 축하합니다. 좋은 친구들,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학교의 다른
것 보다 계명대 학생들이 각자의
역량을 갖고 스스로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재들이 우리 계명대학교에서
나오길 기대합니다.

T

패션디자인과 4학년 숄튼베코바 탄질라

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 125년 동안 계명대학교는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계명대에서
공부하는 동안 놀랍도록 개인적
발전 경험을 할 기회를 주신 대학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기념일을
축하하며 진심으로 존경과 기쁨을
표합니다.



H

건축공학과 4학년 김수민

자랑스러운 우리 학교,
계명대학교가 창립한 지 어느덧
125주년이 되었다니 참 기쁩니다.
오랜 세월 힘들고 기쁘게 이루어낸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에
함께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할 모든 계명인들의
마음을 모아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창립 125주년 축하합니다^^

K

시각디자인과 3학년 정지현

125년 동안 계명의 역사와 명예가
이어져 수많은 계명의 인재들이
사회로 나아가 뜻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축하하며 사회로
나아가는 청년들은 쌓아온 길들과
앞으로의 미래 계명인들은 계명의
영광을 누리길.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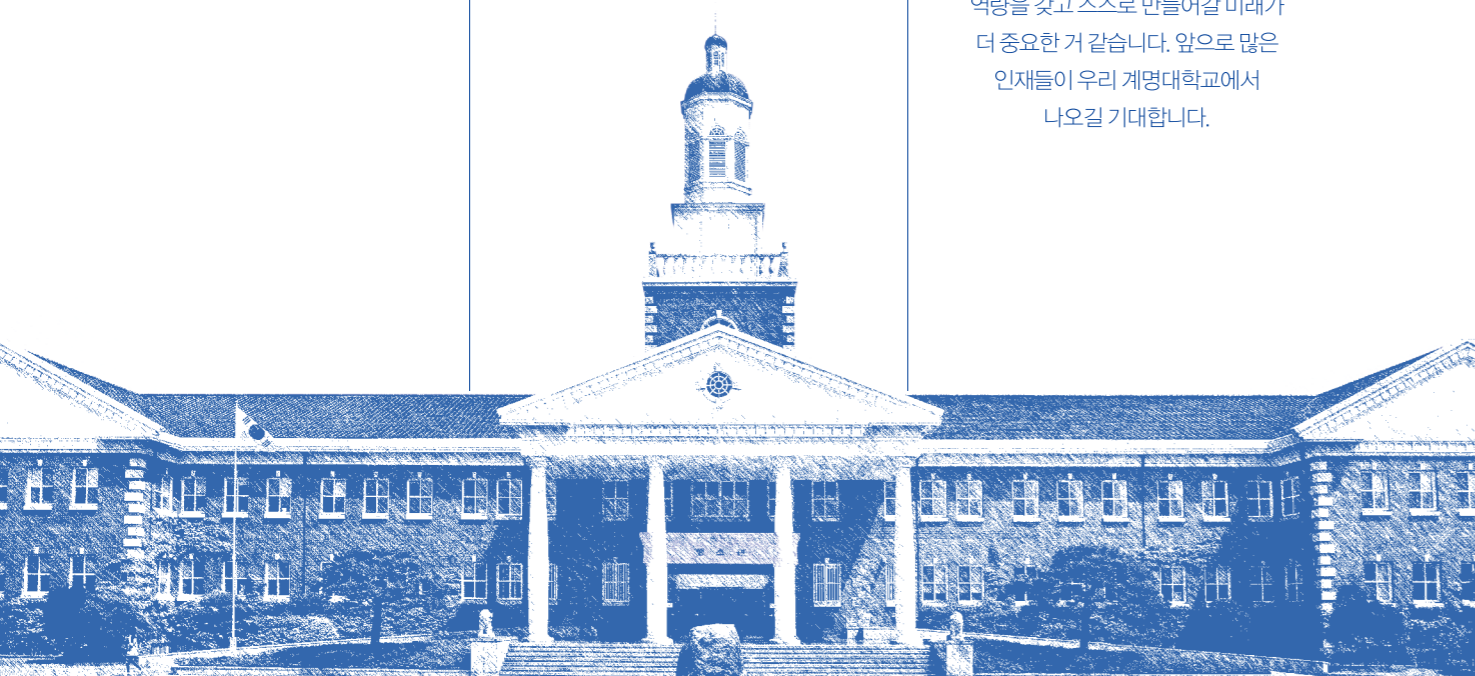
사회복지학과 1학년 김동혁

계명대학교의 125주년을
축하합니다! 1899년 제중원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벌써
125주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앞으로도 대구의 자랑인
계명대학교가 더 큰 성취와 발전을
이루길 바랍니다!

U

언론영상학과 2학년 권세라

계명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계명대학교의 창립
1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계명대도 빛을 내기를
바라며, 그 옆엔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시대를 직면해 온 계명의 순간,

1899



지역을 넘어 세계를 환하게 밝히다

세계를 향해

함께 빛날 계명



계명대학교 모빌리티



대령캠퍼스 정문 및 광장 분수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정문



2024

지켜온 125년의 큰빛

비상할 125년의 계명

오늘의 계명(啓明)이 있기까지, 세계를 향해 빛을 전하는 소명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

啓明



계명대학교가 올해 창립 1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계명대학교가 창립 12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계명대학교는 '지켜온 125년의 큰빛, 비상할 125년의 계명'이라는 포부 아래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라언덕 아래 초가집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한 제증원은 125년이 흐른 지금,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5개의 캠퍼스에 2만 2천여 명의 재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큰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 잠재력을 키워왔고 점차 그 결과와 성과가 명실공히 지역을 넘어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125년이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125년 또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나가는 혁신적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총장님의 대학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학교 본관 벽에는 '타블라 라사(Tabula Rasa,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는 커다란 백지 한 장이 붙어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자리에 걸려 있는데 이는 계명대학교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과 계명의 백지 위에 큰 획과 아름다운 색채가 그려져 계명대학교가 세계 속의 명문대학이 될 것이라는 계명인들의 염원과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계명대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교육이념 아래 전인교육을 통한 국제적인 전문인을 육성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정치적 배경도 없고, 기업체의 후광도 없지만 계명대학교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살핌과 전체 구성원의 단합된 힘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구성원들의 여러 생각이 한 줄기 빛으로 모여 놀라운 힘을 발휘한 셈입니다. 모든 학생에게는 자신만이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개혁정신, 학문의 탁월성, 봉사정신을 핵심가치로 하는 계명정신을 실천, 체득케 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계명대학교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빌리티캠퍼스를 조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과 차별성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명대는 지난 2009년 12월 LH공사로부터 달성캠퍼스(달성군 유가면 용리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소재) 부지 184,689㎡ (55,868평)를 매입해 2013년 스포츠과학연구센터, 산학과학기술센터 등을 준공하며 캠퍼스를 조성했으며, 2016년에는 지상 2층 연면적 1,295,81㎡ (391,98평) 규모의 연구실, CAD실험실, 디자인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연구동과 지상 1층 연면적 777.6㎡ (235,22평) 규모로 연구실, 공동장비 보관실 등을 갖춘 실험동을 준공해 자동차 관련 학과 수업과 실습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계명대 달성캠퍼스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자동차, 자작자동차, 태양열 주행자동차 등의 주행 성능시험장으로 이용하며 모빌리티 산업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계명대학교 모빌리티캠퍼스는 지금까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자체, 기업, 대학 간 개방적 협력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유치, 취업 연계, 지역 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명대는 모빌리티캠퍼스에 향후 7년간 교육동, 연구동, 기업복합공간동 등 복합동과 UAM Vertiport를 구축해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모빌리티대학을 개설하여 모빌리티 소프트웨어학과, 모빌리티 소재부품학과, 항공물류학과, 철도학과 및 융합전공 운영으로 실전형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상주 재학생 규모를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와 자율주행시험장을 한 차원 높게 조성하여 2023년에 설치한 이모빌리티전동화기술 센터를 이모빌리티연구소로 격상하고, 연구 규모 및 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모빌리티 분야 재직자 교육을 연 500명에서 연 1,000명으로 확대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모빌리티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은 인간교육, 문화교육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교육이란 단순히 교육을 위한 교육,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는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제3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는 함께 사는 사회에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4년간 공부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배출하기보다는 '배려할 줄 아는 문화인'을 양성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교는 계명인성교육원을 설치해 인성교육을 체계화하고 대학의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한 학술적 발전 및 관련 기관과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은 우리의 사명이고 연구는 교육을 하기 위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계명대학교는 항상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소통하고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발전 방안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2024년은 계명대학교가 창립 12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어느 한 기관이 한 세기를 넘어 다시 사반세기를 맞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합니다. 성장을 거듭해 온 계명대학교는 늘 지역과 함께해 왔으며, 존재만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우리 대학교의 자원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해 지역을 혁신하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기 위해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 대학들과의 융합, 지역 기업들과의 협업, 이를 통한 정주형 인재양성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지역대학의 역할이며, 책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최고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고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유일한 사람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유일무이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덕목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학생과 지역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역이 풍요로워야 나라가 풍요로워집니다. 결코 수도권 중심만으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으며, 지역이 무너지면 그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정상적으로 수도권 중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평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구·경북은 일제강점기 당시 국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며, 2.28 민주화 항쟁을 통해 군사정부에 맞서며 변화에 앞장섰던 지역입니다.

분명 지금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나 모두의 뜻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은 대학의 역할에 충실하고, 기업은 기업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은 교통과 교육, 문화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며, 지역만의 색깔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오직 대구·경북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물산업이나 로봇산업, 의료, 자율형자동차 등 다양한 차기성장산업을 대구에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종한

동산도서관장

성서이전사 연구편찬위원회 위원장



창립 125주년 기념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세계를 향해 빛을 비추다』 발간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세계를 향해 빛을 비추다』는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계명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1978년 전후를 기점으로 2023년 12월까지 성서캠퍼스를 조성한 경과와 비약적으로 성장해 온 발전 과정, 지역 사회와 우리나라 및 세계에 끼친 영향과 문화 창달에 이르는 45여 년의 역사를 서술한 기록물입니다.

성서캠퍼스 조성의 기본 철학과 정신 및 과정, 생태 캠퍼스로서의 면모,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상을 먼저 서술하고, 나아가 학문과 산학 협력, 기독교와 사랑, 예술과 스포츠, 보건 의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계명대학교가 초대형 종합대학으로 성장한 발자취와 지역 사회의 문화 창달에 끼친 영향 등을 책 속에 담았습니다.

동산도서관장님께서서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책의 편찬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책임감이 막중하셨을 것 같아요.

2021년 3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김남석 이사장님과 당시 계명-목요철학원 백승균 원장님의 편찬 필요성에 대한 발의를 시발점으로,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명대학교 성서이전사 연구편찬위원회'와 함께 짜임새 있는 구성과 충실한 내용에다가 독성을 겸비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4년(1977-1981), 교수로서 40년(1984-2024) 계명인의 일원으로 몸담아 오면서 계명대학교 성서 이전과 비약 발전의 거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였기에 이 책의 편찬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찬 총책임 맡은 후 막중한 소명감을 느꼈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창립 12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적인 해에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세계를 향해 빛을 비추다』를 출간했다. 2019년, 제31대 동산도서관장으로 취임한 이종한 편찬 위원장은 이 책의 편찬을 주관하면서 성서캠퍼스 조성의 전 과정은 기적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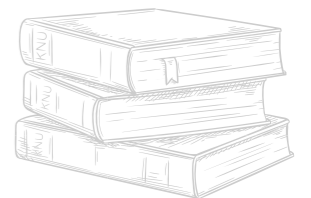
책을 집필할 때, 어떤 과정으로 구성하였나요?

2021년 10월 1일, '계명대학교 성서이전사 연구편찬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서 신일희 총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성서캠퍼스 부지 선정, 캠퍼스 조성의 기본 철학과 방침 및 구도, 자원 확보 방안 등을 파악하고 전체 윤곽과 목차 및 집필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그 후 자료 수집과 초고 작성 준비 작업을 병행하면서 연구 집필 작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약 1년 2개월여에 걸쳐 월 2회 연구 집필 회의를 거쳐 초고를 작성하였고, 6개월 동안 위원 상호 간에 월 1회의 운동 작업을 통해 내용 보완과 수정 작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번 집필된 원고는 끊임없는 퇴고 과정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자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대학 본부에 제출한 후, 다섯 분 감수위원의 세밀한 검증을 받아 책으로서의 완성도가 한층 제고될 수 있었습니다.

편찬 위원장님께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책을 출간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 책의 편찬을 주관하면서 성서캠퍼스 조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그리고 충직한 청지기의 소명 다함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창립 125주년을 맞이하여 이 책의 발간을 지원해 주신 신일희 총장님과 책을 편찬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과 교직원 선생님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1회 ◇◇

계명극재회화상 수상

김서울



1988년생 김서울 작가는 스스로를 '시각예술 종사자'라고 소개한다. 이 단어에는 수사도, 낭만도 없다. 그는 이 점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그림에 대한 태도가 일반적 화가와 사뭇 다르다. 낭만적 예술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게 애매모호한 관념으로 전락해 버린다. 예술은 정확을 기하는 일이다. 그럴 때 회화는 해묵은 색채, 공간, 물질의 과제 안에서도 탐구할 영역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믿게 된다. 회화를 대하는 그의 진실한 마음, 한 가지 색에서 나오는 깊이감이 그의 작품에 열렬히 드러난다.

김서울 작가의 작품은 재료의 분석력과 화면의 절제력, 실험정신을 담고 있다. 그는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의 성장을 이끌고 추상미술의 번창에 혼신을 다한 극재 정점식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극재 선생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제1회 계명극재회화상'의 최종 수상자다.

극재 정점식은 동·서양의 사상과 정신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 그 접점을 대교약拙(大巧若拙)로 표현해낸 서양화가이자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만든 설립 멤버이다. 그는 구상 중심이었던 국내 화단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자신만의 추상미술을 개척하며 새로운 예술의 길을 개척하는 한편,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예술에 정답이 있다면 모방의 종속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점식 선생은 종속적인 삶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예술가였다. 주체적인 삶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그 안에 갇히기를 거부한다. 지식은 진리와 구분되며, 지식이 곧 진리라는 등식도 성립시킬 수 없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아 나선 그의 예술정신은 경계선 상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는 늘 모호하고 불안했지만, 숙명처럼 새로움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화가이며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극재 정점식 선생은 그런 지식 체계 위에서 예술의 길을 개척하셨다. 부단한 자기 절제와 삶의 변주는 쉬는 법이 없었던 그를 김서울 작가는 썩 빼달았다.



김서울 (b.1988)

국민대학교 회화과 학사를 졸업한 후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개인전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디스위켄드룸, 서울, 2021), 《뷰티풀 마인드》(아트딜라이트, 서울, 2021), 《Uncolored》(아트딜라이트, 서울, 2019)를 개최했고 올해 디스위켄드룸에서 새로운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주요 참여 기획전으로는 《블룸 비전》(교토 츠타야 서점, 교토, 일본, 2024), 《Hand to Eye》(BOL 갤러리, 싱가포르, 2023), 《추상의 경계》(아미미술관, 당진, 2021) 등이 있다. 그밖에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작가(2021, 2019)로 선정된 바 있다.

회화의 또 다른 기준이 될 '클래식'

김서울 작가가 제1회 계명극재회화상에 출품한 작품은 <애프터 드 쿠닝 (After De Kooning)>, <필버트 패밀리(Filbert Family)>, <스칼라 앤 벡터 (Scalar and Vector)> 세 시리즈다. 세 시리즈 모두 넘버링으로 이름 붙여진 작품들로, 제1회 계명극재회화상에는 총 1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1



2



- 1 After De Kooning No,5
- 2 Scalar and Vector No,3
- 3 <Filbert Family> series
- 4 계명대학교 극재전시실

<After De Kooning> 시리즈는 네덜란드의 유화물감 제조사인 올드 홀랜드(Old Holland)에서 판매하는 총 168색의 물감을 모두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작가는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7년 동안 모은 돈으로 Old Holland 물감 전 색상을 구매했다. 당시만 해도 700만 원 웃도는 금액이다. 세간의 비판에도 휩쓸리지 않을 전시를 하고 싶다는 신념하에 그는 7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끝에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가 모든 페인팅을 제작할 때 조건으로 삼은 것은 "168가지 색을 '민주적'으로 사용하며, 혼색하지 않고, 비슷한 양을 사용하며, 168조각으로 구성해 화면을 채우는 일"이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론 중 하나는 얇은 경계선을 두고 화면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것이었다. 각 물감의 성질을 세심히 살피는 연구의 과정을 냉담히 기록하면서 하나하나 물감이 필연적인 쓰임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작업에 임했다.

2018년부터 약 4년간 이어진 <Filbert Family> 연작은 사람의 손끝을 닮은 '붓의 상형'을 다뤘다. 붓의 종류 중 하나인 필버트 붓(Filbert Brush)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붓의 둥글거나 납작한, 뚱뚱하거나 빼죽한 형태를 '모듈' 삼아 추상회화로 조립한 결과다. "추측하건대 그림은 붓 형태에 많은 빛을 지고 있을 것이다. 만일 화면을 잘게 나눌 수 있다면, 회화는 이 필버트 모양이 조합된 자국으로 이뤄져 있지 않을까?"

이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 타원, 하트, 격자무늬 등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수십여 종의 형태와 패턴을 추출했다. 그리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붓을 선택하여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붓이 그려낼 수 있는 형태가 캔버스 위에 옮겨진다는 점에서 무엇을 그리는지 보다는 어떻게, 또 왜 그리는지가 작가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4

어떤 작품은 작품을 보고 나에게 주는 느낌대로 감상하고 즐겨도 좋지만, 어떤 그림은 작가의 의도를 알고 나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김서울 작가의 <Scalar and Vector> 작품은 후자에 가깝다. 2021년부터 탐구 중인 <Scalar and Vector> 연작은 앞선 실험적 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색채'라는 깊고 섬세한 세계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색채는 붓질의 크기, 강도와 방향, 광택에 따라 질감이 달라진다. 또 회화에서 색은 최종적으로 작가가 부여한 형태를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 공학의 언어가 담고 있는 단단하고 견고한 성질을 마음에 새기며 색채를 깎고 다듬었다. 섬세히 설계된 색채는 마법과 같다. 그 마력은 한 인간의 역사를 뒤흔들 수 있다고 믿는 그다.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예술의 강력한 힘

김서울 작가는 그동안 작업을 하면서 물감뿐만 아니라, 캔버스, 붓, 액자에 관해 연구했다. 이는 모두 같은 미술의 기본 재료로, 산업이라는 큰 격자 안에서 생산, 유통, 소비된다는 공통점 때문이었다. 현재 그가 당면한 '인간', '대상', '도구'라는 키워드를 회화에 국한해 생각해 보면, 미술의 기본재료와 마찬가지로 소거할 수 없는 마지막 3요소다.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엮을 것인가에 대한 모색은 과거에 시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과거의 관습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어떻게 유의미하게 새롭게 보일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인간, 과거에 대한 고찰 없이는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자기 객관화 아래 스스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하는 김서울 작가의 작품에 감히 단일한 잣대로는 작품의 성격이나 가치를 매길 수 없을 것이다.

좋은 작품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좋은 작품을 보고 회화의 역사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형에 대해, 아름다움에 대해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말처럼 김서울 작가를, 그의 작품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제1회 계명극재회화상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제1회 수상자이자 '처음의 기준'을 만든다는 점에서 기쁨보다는 앞으로 본인의 삶이 누군가에게 표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하는 그의 태도가 사뭇 경건하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이 과잉으로 넘쳐흐르는 오늘날, 작품에 적합한 재료를 찾아 조화롭게 배치하고 창작자만의 고유한 인식을 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김서울 작가의 작업은 학생들에게, 고군분투하는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큰 위안과 영감, 메시지를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THE POWERFUL POWER OF ART



Kazakhstan

Uzbekistan

Turkmenistan

‘계명대-우즈베키스탄’의 문화예술 교류, 그 현장 속으로 ✕

계명대학교는 2001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18개 대학 및 기관들과 교류 활동을 펼치며, 양국 간 친선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하였다.

미술대학 학생들과 태권도 시범단이 우즈베키스탄 예술학술원 초청으로 4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국제 순수 및 응용 미술 축제'에 참가해 행사기간 동안 '계명의 날' 행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계명의 날' : 문화와 예술을 교류하다

4월 12일(금), 계명대 미술대학 학생들(회화과, 공예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이 우즈베키스탄 예술학술원에서 주관하는 '국제 순수 및 응용미술 축제'에 초청받아 우즈베키스탄 현지로 떠났다. 이번 행사에는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프랑스,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 예술가들이 참가했다. '국제 순수 및 응용미술 축제'는 우즈베키스탄 예술 창작 연합 회원을 비롯하여 예술 교육 전문 교육 기관의 교사 및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전국 거점도시마다 예술 분야의 축제가 진행되는 국가적인 행사이다.

'국제 순수 및 응용미술 축제' 개막식에는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패션쇼도 진행하는 등 계명대의 예

술적 역량을 국제무대에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다. 계명대는 이번 행사에 세 번째로 초청돼 주최 측의 요청으로 행사 기간 중 하루를 '계명의 날'로 지정해 '제1회 계명국제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개회식에는 누리디노프 아크말 바흐자노비치(Nuriddinov Akmal Vahobjanovich) 우즈베키스탄 예술학술원장, 미르조라히모프 압보스존 쇼드모노비치(Mirzorahimov Abbosjon Shodmonovich)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디자인대학 총장, 국장현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대사 대리, 아미르 사이이드 카라미(Amir Saeed Karami) 주 우즈베키스탄 이란대사관 문화참사관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4.15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원 계명의 날 행사 개막식



4.15 계명대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이 작품으로 패션쇼 개최

본식에서는 전공 교수들의 특강과 계명대 미술대학 10개 학과의 학생들 작품 51점과 교수작품 17점 등 68점의 작품을 전시하며, 제1회 계명국제미술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회 계명국제미술실기대회는 총 상금 미화 5,300달러로 현지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전국에서 502점의 작품이 접수돼 큰 호응을 얻었다. 21명의 본선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부하라 예술고등학교 3학년 사포예브 뭇타포전이 대상과 함께 상금 미화 600달러의 영광을 안았다. 계명대 회화과 정재은 학생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국적과 생김새가 전부 달라도 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4.15 계명의 날 특별전시회

제1회 계명국제미술실기대회 수상작



대상



금상



금상

Uzbekistan

Korea



4.15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소속 한국교육원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계명대 태권도 시범단



4.17 계명대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공연



4.17 계명대 체육대학, 우즈베키스탄 태권도협회와 MOU 체결

이와 더불어 체육대학에서는 태권도학과 학생, 교수 등 약 20여 명이 2024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학술원 '국제순수 및 응용 미술축제'에 참여하여 개막식과 축제 기간 동안 태권도 시범공연을 선보였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학술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축하공연은 태권도의 화려한 무예를 선보여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또한, 4월 15일에는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소속 한국교육원을 방문하여 태권도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체육대학은 4월 16일, 17일 양일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국립체육대학 및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국제 순수 및 응용미술 축제를 비롯 여러 문화 및 예술 교류를 통해 계명대는 재학생들의 국제 감각을 기반한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 문화와 예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신일희 총장, 국경을 넘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 수득

계명대와 우즈베키스탄 간의 관계는 2001년부터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 대학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KF 글로벌 e-스쿨 사업에 선정되어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와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 국외봉사활동과 교직원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두 학교 간의 학술 및 인적 교류가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계명대가 창립 125주년 해인 만큼 계명대와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우리 대학교 신일희 총장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영광을 얻었다.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제2회의실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리흐 시에바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 총장, 보직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신일희 총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타슈켄트를 넘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나의 이성과 나의 주장이 만들어 놓은 불품없는 세상을 벗어나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교류를 통해 더 평화롭고 합리적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크로드의 아주 평범한 진리를 타슈켄트에서 느끼고 이 아름다운 도시의 문화사적인 역할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외국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원 명예회원으로 임명됐으며, 2022년 3월에는 한국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한류 문화 전파에 기여한 공로로 아크말 누리디노프 우즈베키스탄 예술학술원 회장에게 명예미술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 현지에서 신일희 총장을 대신해 명예박사 학위증을 전달받고 있는 김선정 계명대 국제부총장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동방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신일희 총장. 이날 수여식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20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

김도윤 경영학과 05학번

계명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한 김도윤 작가는 4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누적 7억 조회수의 '김작가 TV'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다.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대구에서 서울로 상경한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10여년간 성공한 인물 1,000여 명을 인터뷰했다. 작가로서, 유튜버로서, 김도윤이라는 이름 석 자 걸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자극제를 찾아 나서는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한국인이 특히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한 자기계발서. 이 시장의 생명력은 꽤 질기다. “알맹이가 없다” “식상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외면받았다가도,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지는 시기가 오면 다시 뜬다. 자기계발 콘텐츠의 트렌드는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또 한 번 변형됐다. 재테크, 투자로 안정적인 부를 누리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자유'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종이책과 오프라인 강연을 벗어나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돋움한 '성공 멘토'가 쏟아져 나왔다. 김도윤 작가 또한 종이책과 오프라인 강연, 유튜브까지 점령한 성공 멘토 중 한 명이다.

작가이자 강사로 활약하던 김 대표는 『유튜브 젊은 부자들』을 집필하면서 유튜버 도전을 결심했다. 국내 유명 유튜버 23인을 인터뷰해 그들의 노하우를 파악하자 용기가 생겼다. 그는 “강연이 일방향이려면 인터뷰는 쌍방향 소통”이라며 “필력과 스피치력보다 인터뷰에 소질이 있다는 판단하에 유튜브에 인터뷰 형식을 녹여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1%의 성공을 거둔 김도윤 작가의 명함과 유튜브 채널 메인에는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라는 문장이 잠언처럼 적혀 있다. 2018년 10월, 재테크와 자기계발, 동기부여 전문 채널인 '김작가TV' 유튜브를 운영한 지 5년 만이다. 구독자 200만 명을 달성한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섭외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김도윤 “저는 스물네 살 지방대를 입학해 서른 살 늦깎이 졸업생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순탄치 않았던 시간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했죠. 성공이 너무 하고 싶은데,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빠르겠다. 자기계발, 재테크 분야 등 세상에 내로라하는 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자. 그렇게 10여년간 1,00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천 명을 인터뷰했다는 건 4-5천 명에게 섭외 요청을 했다는 말과 같아요. 거듭된 인터뷰 '거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절보다 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더 두려웠거든요. 10년 동안 인터뷰를 해보니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로 동기부여하는 데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현재는 작가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하루에 2개, 주말에는 4개씩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한 달이면 80~100개 정도의 영상이 업로드가 돼요. 유튜버로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높은 조회수에 기뻐할 새 없이 다음 영상 주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꾸준함은 유튜버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 중 하나죠. 유튜버를 꿈꾼다면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해요. 현재 삶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지향한다면,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 삶의 패턴을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합니다. 처절한 각오로 새로운 삶에 자신을 내던져 보세요.”





김도윤
인스타그램



김작가TV
유튜브

진정한 꿈을 찾을 때까지 달리는 프로 근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꾸준히 글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는 등 성공의 기회를 늘려가고 있다. 이건 성실함의 역량이다. 성실한 사람이 하는 치명적 실수는 시도를 통해 나온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똑같은 조건에서 재시도 한다는 것이다. 김도윤 작가는 알고 있었다. 1,000명을 만나 인터뷰해 보니 그가 상위 1%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10여 년간 인터뷰어로 일했던 경험이 유튜브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 금융 관련 전문 지식은 부족했지만,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경험으로 부족한 역량을 상쇄할 수 있었다.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내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자신에게 온 운을 캐치하려면 충분히 자신을 갈고닦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도윤 “나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세상이 기회를 주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나의 시도와 결과를 복기하는 ‘스마트한 성실함’이 필요해요. 열심히 살기 시작한 26세부터 30세에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전국규모의 큰 대회 수상만 10여 번, 해외 봉사 3번, 약 17개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턴십 3번, 공모전 17관왕을 했어요. 제가 서울의 명문대학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남들만큼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치열하게 살다 보니 졸업할 때는 ‘대한민국 인재상(대통령상)’이라는 귀한 상까지 받았습니니다. 난생처음 느껴본 성취감이죠.”



1 한석준 아나운서와 인터뷰하는 김작가
2 촬영 준비하는 김작가

SMART
PROFESSIONAL
SINCERENESS

파도가 오면 그 위에 올라타라

김작가는 삼십 대가 되어서는 잘 다니던 직장을 2년 만에 때려치우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하지만 남들에게는 배고픈 직업으로 알려진 작가 일을 시작했다. 첫 책인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작가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다음에 깨달았다. 워낙 책을 보지 않은 세상이기에 몇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고작 몇만 부 정도의 책으로는 작가로서 절대 먹고 살 수 없었다. 지난 10여 년간 『최후의 물입』, 『머니트렌드 2024(공저)』 등 총 10권의 책을 집필한 그가 유튜버로서는 5년간 3,800개 이상의 영상을 올리며 성공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골드 버튼까지 받았다. 유튜버까지 병행하며 최근에는 『내가 천 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신간을 세상에 내놓았다.

김도윤 “27·28세부터는 타인에게 동기부여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앞으로도 책이든 영상이든 강연이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제가 13년 동안 내로라하는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며 인생에 대한 수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그 내용을 대중에게 알려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소중한 것’에 대한 대답은 저마다 달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가장 슬직한 순간에 남는 건 돈, 명예, 시간도 아니더라고요. 성공만이 내 삶의 지표라고 생각해 왔는데, 천 개의 인생을 만나 보니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저의 신간을 통해 하루빨리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모든 시도가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경험치가 다음 도전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인생을 살아 보니 정상을 향해 꼭 직진하지 않아도 된다. 우회전도 있고 좌회전도 있다. 유턴도 가능하다. 무조건 옳은 길이란 없다. 하지만 아집을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분야에 도전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파도가 밀려올 때는 파도를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디, 계명대학교 학생들도 파도가 오거든 그 위에 올라탈 수 있길 바란다. ”



김도윤 작가 신간 도서

내가 천 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 돈, 명예, 시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에 관하여

13년 간 1천 개의 인생에게 물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알게 된다.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생애 한 번뿐일 수도 있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행복을, 부디 놓치지 않기를.

NABUC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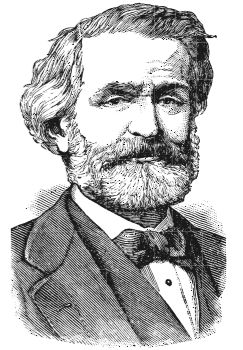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기념 오페라 '나부코'

오페라 '나부코'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계명대학교는 창립 125주년을 기념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치유의 선물을 전하고 희망을 안겨드리고자 화려하고 현실감 넘치는 오페라 '나부코' 공연을 준비했다. 이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여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계명대학교 위상이 되었다.

오페라 '나부코' 핍박 속 희망의 노래

오페라 '나부코'는 기원전 6세기에 히브리인들이 나부코에 의해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 강제 이주해 70년 동안이나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유배생활을 한 사건(바빌론 유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의 작품이다. 베르디가 아내와 자식을 잃고 좌절과 비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받아들인 한 편의 대본이 그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되었다.

바빌론 유수를 겪으며 조국을 잃은 슬픔과 핍박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날아가라, 내 마음이어! 금빛 날개를 타고'는 베르디의 마음에 창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페라인 '나부코'를 탄생시켰고, 오스트리아의 지배 하에 고통받고 있던 이탈리아 국민들의 마음에도 독립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선물하였다. 1842년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됐으며, 3막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음악사에 남을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세계적 수준의 작품으로 계명대를 빛나게 하는 순간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기념 오페라
나부코(NABUCCO) 공연 포스터

이번 공연의 총감독은 하석배 계명대 음악공연예술대학장이 맡았다. 지휘는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대학의 교수로 있는 다니엘레 아지만(Daniele Agiman)이 맡았는데, 다니엘레 교수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40편 이상의 오페라와 교향곡, 협주곡을 지휘하는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또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스칼라 오페라극장 코치 움베르토 피나치 교수의 음악 코치를 통해 오페라의 완성도를 높였다. 대학교의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예술적 인프라를 총동원해 해외 자매대학 출연진들과 함께 수준 높은 오페라를 선보이는 것은 계명대학교가 유일하다. 연출은 히로키 이하라(Hiroki Ihara) 교수가 맡았다. 오사카 음악대학 교수로 있는 히로키 교수는 2017년 리보르노 골도니 오페라극장, 피사 베르디 오페라극장, 루카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한 마스카니 오페라 이리스의 연출로 비평가상을 수상했다. 이화영, 김승철, 강현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계명대학교 교수진과 동문,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출연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난해부터 밤잠을 설치며 공연을 준비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각 파트장은 학생 관리부터 합창 수업이나 오페라 진행에 필요한 준비를 도맡았다. 학생들의 발음, 박자, 암기 등을 확인하며 오페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대표하고, 전 세계 오페라의 메카로 입지를 굳힌 '라 스칼라' 극장에서 직접 무대 의상을 공수해 오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작품으로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4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지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의 첫 히트 오페라인 '나부코'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 삽입되어 있다. 희망찬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이탈리아 국민의 마음을 위로했던 이 노래는 이탈리아에서는 제2의 국가로 여겨졌다. 지금도 이탈리아인들은 오페라 나부코를 관람하다가 이 노래가 나오면 모두 일어나서 떼창을 하고 그 곡을 다시 앙코르까지 한다.

합창으로 들어가, 그리고 합창이 들어가야 더 좋은 음악이 있다. 이번 계명대 '나부코' 공연 3막에서는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12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히브리 노예의 합창('날아가라, 내 마음이어! 금빛 날개를 타고')을 연주하게 된다. 합창 지도는 우성규 교수가 도맡았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 투입 더불어 전국에서 성악, 오케스트라, 무용 모두 재학생들만으로 이루어진 오페라는 계명대학교가 유일하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등 다성(多聲)과 다부(多部)로 화합과 화음을 중시하는 합창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음악 활동일 것이다. 격렬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지만 은은하고도 묵직하게 이어지는 선율 속에 담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길 바란다. 합창단의 2년의 연습 기간, 대규모 오페라 진수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대규모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통해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을 보기 바란다.

- 1 하석배 계명대 음악공연예술대학장
- 2 '나부코' 공연 합창단 연습 현장
- 3 오페라 연습에 열중인 계명대학교 교수진들

나부코 관전 포인트 Top 3

OPERA NABUCCO

- ◆ 세계적인 무대 의상과 무대 기술
비범하고 파격적인 연출 무대 제작과 더불어 의상, 분장, 연출, 노래, 연기 등은 이번 무대 최고의 관전 포인트
- ◆◆ 학생들의 참여와 노래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12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흠집을 데 없는 성량과 풍부한 감정표현으로 관객들에게 만족감 선사
- ◆◆◆ 제3막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관객의 앙코르 요청이 가장 많은 곡으로 억압에 대한 저항을 또렷하게 나타내며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합창. 공연 전, 미리 듣고 오는 것을 추천

성악과 22학번 박세영 파트장



코로나19 이후, 첫 '나부코' 공연인 만큼 창립 120주년과 비교해 더 발전된 오페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나부코 공연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지난 학기부터 가사 해석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공부하고, 노래로 익혔습니다. 멋진 무대 만들고자 훌륭한 교수님과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도 오페라의 서곡이 끝난 후, 첫 도입부를 알리는 오페라 합창의 웅장함과 전율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성악과 20학번 이성민 합창 총무



'나부코'는 저에게 명예의 전당과 같은 공연입니다. 합창 총무로서 출중한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과 함께 '히브리 노예의 합창'을 연주하게 되어 너무 뿌듯합니다. 계명대학교의 힘찬 비상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Va, Pensiero" (히브리 노예의 합창)을 준비했습니다. 공연장에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이 박수와 환호와 함께 명품 오페라를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reer Jump Up! 미국으로 건너가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다

김유빈 Keimyung Adams College(KAC)
국제경영학과(IB) 15학번

현재 딜로이트 오마하 미국지사에서 근무
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UNL) 복수학위

김유빈 동문은 영어전용 단과대학인 Keimyung Adams College(KAC) 국제경영학과에서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세계 1위 회계그룹 딜로이트 오마하 미국지사 근무 중이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가 아무런 연구가 없는 세계 무대 위에 홀로 뛰어 들었다. 세계인과 공부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속도는 다를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뤄진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KAC에서 2년, 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UNL)에서 2.5년 수학하여 두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는 딜로이트 오마하 오피스 감사(Audit)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빈입니다. 딜로이트(Deloitte)는 영국 런던 메이페어(Mayfair)와 미국 뉴욕 록펠러센터(Rockefeller Center)에 글로벌 본부를 두고 있는 매출 세계 1위 회계그룹입니다. 저는 감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팀원들과 주로 IT, 통신, 기계공학 분야의 기업들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국내의 두 대학교를 졸업
하셨네요. 복수학위 준비
과정이 궁금해요.

네브라스카 링컨대학교(UNL)는 미국 네브라스카주 링컨시에 있는 주립 종합대학교로 네브라스카대학교 시스템을 관할하는 플래그십 대학입니다. UNL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해외에 체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큰 어려움 없이 미국 생활을 지금까지 수월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KAC의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해외 생활을 잘 대비한 점과 여러 분야의 좋은 교수님들로부터 국제경영, 회계학,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 잘 배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Q.

김유빈 동문님은 학부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KAC에서 공부하면서 커리어 목표를 세우고, 제 삶의 방향을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도 활발히 했어요. 뮤지컬 동아리(MUSCAT)와 영어 토론 동아리(KACDS) 활동은 즐거운 추억이면서 유익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뮤지컬 동아리에서는 팀워크와 나의 열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영어 토론 동아리에서는 나만의 생각을 갖는 훈련,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스킬은 현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동문님은 학부 시절부터 회계사가 되고 싶으셨나요?

회계사로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다는 목표보다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싶어서 회계사를 선택했어요. 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핵심 도구라고 생각해요. 실무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다양하게 적용되는 규제, 세법, 금융 보고 기준들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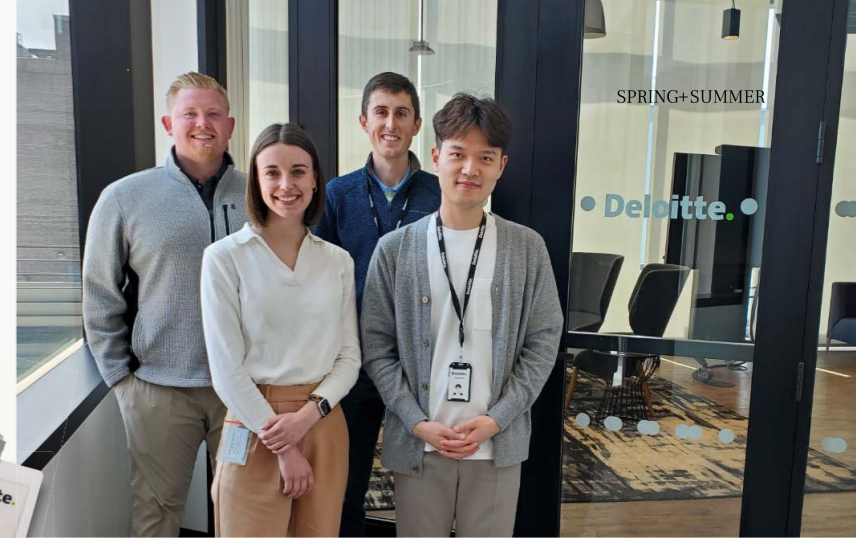
처음에는 낯선 외국어처럼 느껴졌던 여러 회계 처리와 보고가 점차 익숙해지게 되었는데, 여러 비즈니스의 언어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며 여러가지로 성장할 기회가 많은 지금의 업무 환경이 만족스럽습니다.

Q.

동문님의 딜로이트 입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 궁금해요.

2021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과 시 적성검사를 통과한 후, 세 번의 면접관과 두 번의 면접 라운드를 거쳤습니다. 면접 당시, 까다롭거나 어려운 질문보다는 저의 이력서와 관련한 질문들을 주로 받았어요. 면접을 잘 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었어요. 면접관들은 제가 UNL 재학생일 때 딜로이트에서 주최한 'Deloitte Audit Innovation Campus Challenge 대회'에 참여 한 것과,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봉사활동'을 한 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 해, 2021년 딜로이트에서 여름 인턴십을 마치고, 정식으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석사과정까지 마친 후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2022년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 24위 선정된 '딜로이트' 회계법인그룹



Q.

누구나 한 번쯤 부러워할 만한 미국 생활, 꿈에 그리던 직업.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딜로이트가 2022년에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 24위로 선정됐어요. 회계법인이라는 특성 상 근무 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쁜 시즌이 끝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쓸 수 있고, Well being subsidy를 통해 취미와 오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도 제공됩니다. 또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 등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딜로이트는 미국에서의 삶과 적절한 휴식의 균형을 잘 이뤄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Q.

동문님처럼 회계사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큰 목표를 세우되, 단기적으로는 주변의 여러 기회들에 집중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업종, 분야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과 기관에서는 회계 업무가 필수입니다. 회계사로서 중시할 다양한 기회들이 열려 있어요. 회계라는 기술이 여러분들이 진출하고 싶은 업종과 분야로 향하는 데에 황금열쇠처럼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해외 취업, 나만 알고 싶은 꿀팁 2가지

- 1. 현지 언어에 대한 고민보다는 영어 스피킹 능력을 꾸준히 키우자!**
해외 취업이라면 영어는 필수겠죠? 영어 실력은 전반적인 해외 생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지속적인 커리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 현지에서의 '적응력'을 어필해보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잘 지냈던 경험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던 사례를 들어 면접관의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것이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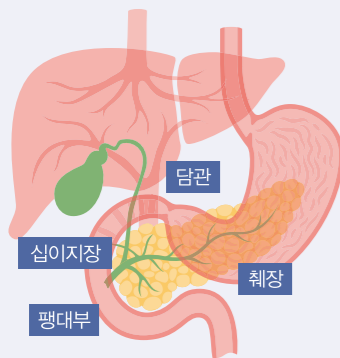
팽대부주위암 얼굴이 노랗고 소변이 붉게 나온다면...?



안근수 교수
간담체외과

■ 팽대부주위암이란?

십이지장 내에 있는 팽대부라는 곳에서 담관과 췌장이 만나 십이지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팽대부 주위에 있는 췌장 머리 부분, 간외 담도, 팽대부,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암이다.



이 4가지 암, 즉 췌장머리암, 간외 담관암, 팽대부암과 십이지장암을 합쳐 팽대부주위암이라 부른다. 이 4가지 암은 증상이 비슷하고 수술방법이 동일해서 팽대부주위암이라 통칭한다.

■ 팽대부주위암의 증상은?

병의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병이 진행되면서 종양이 담관을 막게 되어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흘러나오지 못함에 따라 황달이 발생한

다. 또한 담즙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소변으로 나오게 되므로 소변 색도 붉은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췌장암의 경우 췌장관을 막게 되어 췌장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므로 당뇨가 발생하거나 기존에 당뇨가 있는 경우 악화될 수 있다.

■ 팽대부주위암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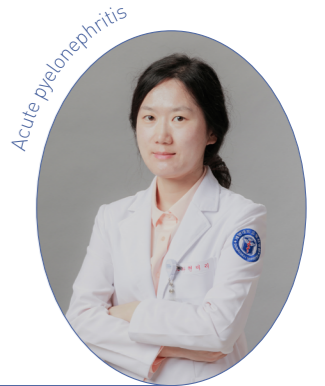
만약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경우 담낭과 담관, 십이지장, 췌장이 모두 붙어 있는 장기이므로 담낭과 간외 담관, 췌장의 머리, 십이지장과 소장 일부를 절제한 후 남은 소장을 췌장, 담관, 십이지장(위장)과 붙여주는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의 범위가 크고 수술 시간과 술 후 회복기간이 긴 수술이다. 최근에는 병의 상태에 따라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술후 발생하는 합병증의 상당수는 내시경이나 초음파 등을 이용한 시술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수술 중 절제된 장기를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조직검사는 수술 후 2-3주 정도 소요되며,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진단과 병기가 결정되며 여기에 따라 추후 항암치료 등 추가치료 여부가 결정된다. 많이 진행된 암의 경우 수술이 어려우며 항암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 후 병이 호전되면

수술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췌장암의 경우 예후가 많이 나쁘지만 최근에는 수술 전 항암치료로 병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 후 항암치료로 재발의 확률을 줄일 수 있어 과거보다 많은 생존율의 향상을 보이고 있다.

팽대부주위암의 경우 처음에는 복통이 심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강검진(내시경, 초음파 등)으로는 발견되기 어려워 조기 진단은 어렵다. 하지만 황달이나 소변색의 변화는 비교적 일찍 나타나므로 눈이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색이 변하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급성 신우신염 소변이 자주 마렵고, 열이 난다면...?



현미리 교수
감염내과

■ 급성 신우신염이란?

급성 신우신염은 균혈증(무균 상태여야 하는 혈액에서 세균이 확인되는 상태)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 중 하나다. 방광염으로부터 시작되어 상행성 감염으로 주로 발생하며 간혹 혈행성 감염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신우신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방광염이 선행하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배뇨통, 육안적 혈뇨, 하복부 통증과 같은 증상이 선행할 수 있으나 당뇨 환자에서는 방광염 증상을 환자가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 신우신염은 콩팥의 염증으로, 발열을 포함하여 전신 증상들이 동반된다. 대표적으로는 오한, 오심, 구토, 두통, 복통, 옆구리 통증 등이 동반되며,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 의식 저하까지 동반될 수 있다. 당뇨 환자에서는 발열만 호소하기도 한다.

■ 급성 신우신염의 원인

나이, 성별, 기저 질환에 따라 발생 원인은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요도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여성에서 남성보다 호발합니다. 또한 방광의 요배출 능력 저하, 중년 남성에서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이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요로 폐쇄가 동반되어 있을 때 호발한

다. 여성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성의 경우 1세 미만에서 해부학적 이상이 있거나 50세 이상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장기 이식, 항암치료,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면역 정상인에 비해서 호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방광 요관 역류와 같이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급성 신우신염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6개월에 2번 이상, 1년에 3번 이상 발생하는 재발성 급성 신우신염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남성에서 발생한 급성 신우신염에서는 급성 전립선염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를 해야 한다.

■ 급성 신우신염의 치료

기본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한다. 최소 7일간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며, 원인균과 항생제의 종류에 따라서 14일 정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항생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면 항생제 내성균일 가능성 고려하여 원인 세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인 균주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적절한 기간동안 투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 실패, 재발의 위험도 있으

며 특히 남성에서 급성 전립선염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항생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 대부분은 경구 항생제를 사용하나, 원인균에 따라서 정주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급성 신우신염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 급성 신우신염의 예방

급성 신우신염에 한번 걸린 경우에는 재발을 잘 한다. 특히 신우신염에 선행하는 방광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로 폐쇄가 방광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소변을 참지 말아야 하며,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적절히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내에 수분이 너무 부족해도 소변이 산성화가 되어 방광염에 잘 걸릴 수 있으므로 물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골고루 잘 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여성의 경우, 대변을 보고 난 이후에 항문 근처에 집락되어 있던 세균들이 요도 쪽으로 가지 않도록 대변을 닦는 방향에 신경을 쓰고 비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계명대 중국 동문의 날' 행사

01

계명대, 창립 125주년 기념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열어

계명대학교가 창립 125주년을 맞아 '디지털 시대의 한국학: 연구자원, 도구, 방법론'을 주제로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5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30여 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를 맞아 한국학의 학술 자원을 어떻게 재정의하며 어떠한 도구와 방법론으로 학문적 좌표를 재구성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틀 동안 20명의 발표자가 5개의 세션을 나눠 논의가 이어졌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계명대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옛 문헌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발굴하고 문화재급 자료를 소장하는 한편,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과 해제 서비스, 다양한 출판 기

획을 통해 소중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진력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크게는 한국학 자료 전반에 대한 발굴과 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새롭게 복원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환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

계명대 출신 중국 유학생들, 현지에서 '중국 동문의 날' 행사 가져

계명대학교 출신 중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 베이징에서 '계명대학교 중국 동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지난 3월 30일(토) 북경어언대학 한덕현 연회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중국 전역의 계명대 중국 유학생 동문 90여 명이 참석했다. 계명대는 1997년 중국인 학생 2명 입학으로 2004년부터

20여 년간 3,191명의 중국인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특히 학부 2,397명, 석사 508명, 박사 286명을 배출하여 많은 우수 졸업생들이 소주대학, 북경어언대학, 북경우전대학, 남창항공대학, 하남이공대학, 북방민족대학 등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다. 졸업생 대표로 여정 평정산대학 신문 및

방송대학 학장은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멀리 타국으로 공부하려 했던 날이 떠오른다."며, "함께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박사 동문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발전을 위해 모교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고 전했다.

03

계명대, '2024년 KF 글로벌 e-스쿨' 사업에 선정



계명대학교가 '2024-2026 KF 글로벌 e-스쿨 국내-해외 연계형(실시간형) 사업'에 선정되면서 한국어교육 및 한국학의 전세계적 확산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 사업은 해외 한국학 강좌 개설 대학을 확대하고 강의 분야를 다변화하여 해외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계명대는 이 사업을 위해 폴란드의 Jagiellonian University, 헝가리의 Karoli Gasper University, 체코의 Palacky University 등 유럽 및 중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주요 대학들과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들 대학은 본 사업을 통해 한국학 및 한국어교육학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4

계명대 산학협력단 설립 20주년 기념 '계명산학협력 포럼' 열어

계명대학교가 산학협력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계명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4월 8일(월), 호텔인터볼고 엑스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11회째를 맞아 계명대 신일희 총장, 본부 보직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이종곤 계명대 가족회사 대표(에스엘㈜ 회장), 이재하 총동문회 회장(삼보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지역 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켜온 125년의 큰빛, 비상할 125년의 계명'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과 함께 산학협력이 걸어온 20년과 앞으로의 미래를 제시하고, 대구지역의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과 공급망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05

계명대, 2024 아트코리아랩 대학연계 아트&테크 창업 활성화지원사업에 선정



계명대학교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 아트코리아랩 대학연계 아트&테크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구경북 대학교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계명대학교 아트&테크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은 1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특화 분야「미술 콘텐츠」를「VR/AR/메타버스, AI/딥러닝, IoT」등 기술과 연계한 예술창업 활성화 사업으로써 성공적 창업 및 성장을 위하여 단계별 예술특화 창업교육, 전담 멘토제, 관련 분야 네트워크,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계명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계명대가 가진 예술 지원 인프라와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창업패키지, 로컬콘텐츠,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대학발 예술청년창업자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06

계명관리운영직 자원봉사단, 계명대에 모빌리티캠퍼스 조성기금 500만 원 전달

계명관리운영직 자원봉사단(단장 황석주)이 계명대에 모빌리티캠퍼스 조성기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했다. 4월 17일(월) 오전 11시, 계명대 성서캠퍼스 행소관 접견실에서 신일희 계명대 총장, 황석주 계명관리운영직 자원봉사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 황석주 계명관리운영직 자원봉사단장은 학교에서 나오는 폐품들로 마련한 돈이기 때문에 학교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



07

계명대, 미국 디지펜공대와 손잡고 게임 분야 한류를 선도

계명대학교가 최근 미국 디지펜공과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2034년까지 이어가기로 협정을 체결해 계명대와 디지펜공과대학 간의 글로벌 게임인재 양성 협력 프로그램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계명대 디지펜게임공학과 출신들은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IT분야로 취업하는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현지인과의 협업이 잘되고 개발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 인기기업 취업률이 70%를 넘는다. 금번 장기 계약 연장을 통해 게임과 프로그래밍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미국 대학 졸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펜게임공학과가 더 많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08

김익현 교수 연구팀, 충격파 유동을 활용한 가스센싱 효율 증대 연구 논문 게재



계명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익현 교수 연구팀이 충격파 유동을 활용한 가스센싱 효율 증대에 관한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Ceramics International 논문지(JCR 상위 8.6%, Q1 카테고리)에 "충격파 유동을 이용한 페로브스카이트 티탄산바륨 나노 소재의 가스센싱 효율 증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제시된 센서감지 성능향상 감지 연구결과는 충격파 유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적용 가능하고 추후 가스 누출감지 모니터링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좌측부터 비사프라카시 연구원(공동저자), 마틴 브리프 다스 교수(공동저자), 수렌다 연구원(저자), 김익현 교수(교신저자)

09

계명대, '2024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에 선정

계명대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4년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정부와 국내 대학이 공동으로 대학의 자원 및 학문적, 교육적 역량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고등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계명대는 2021년과 2022년에 교육부의 글로벌교육 지원사업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공공외교 역량강화대학 지원사업, 경상북도의 새바람 행복나눔 국제협력사업 등 각종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험과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수행 계획 타당성 등을 인정받아 사업에 선정된 계명대는 올해 4월부터 7년간 25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10

계명대, 대구 자율형 공립고 2.0 5개교와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힘 모으기로

4월 25일(목) 오후 2시 계명대와 대구 자율형 공립고 2.0 경북여고, 군위고, 다사고, 포산고 등 5개교가 한자리에 모여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계명대와 5개 고등학교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산업의 요구에 맞는 지역 특화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대학과 고등학교가 연계교육을 실시해 서로 협력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친화적 교육혁신과 창의융합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교육시설 활용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11

계명대 출신 베트남 유학생들, 현지에서 동문회 결성해



계명대학교 출신 베트남 유학생들이 졸업 후 모국에서 동문회를 결성하고 모교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7일(토) 베트남 전역에서 계명대학교 베트남 동문 45명이 모인 가운데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SUNWAH 홀에서 '계명대학교 베트남 동문회 결성식'이 진행됐다. 동문회 결성식에 참석한 베트남 동문들은 교수, 사업가, 고위 공무원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모교의 베트남 동문회 결성에 큰 기쁨을 표하기도 했다.

Spring+Summer
NOV. 2024

AROUND DONGSAN

vol. 81

01

대구동산병원, '차세대 환자중심병원' 건립 사업 순항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지난해 8월, '차세대 환자중심병원 건립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초기 제증원 원형 재현 사업 및 경북권(대구)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장례식장·신관 건립 등을 통해 ▲치유의 공간 ▲휴식의 공간 ▲역사·문화의 공간을 조성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제증원 원형 재현 사업은 동산의료원 창립 1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공사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2월 말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5월 준공 예정이다. 대구동산병원에서 운영할 경북권(대구)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대구·경북지역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례식장(부대사업장) 건립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존 대비 5개 증가된 10개의 빈소를 갖추어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며, 부대사업장을 조성하여 고객 중심의 편의성을 갖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롭게 건립되는 신관은 지하1층 지상 10층 높이의 연면적 20,760㎡ 규모로, 외래진료센터·병동(351병상)·중환자실·수술실·건강증진센터 등 스마트 의료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02

2023 메디컬 코리아 어워드 '종합병원 암센터 부문' 수상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하는 '2023 메디컬 코리아 어워드'에서 '종합병원 암센터 부문'을 수상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첫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수상하며 의미를 더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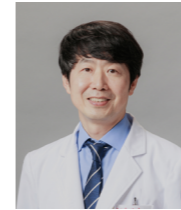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 이식 환자의 신장 이식 수술 성공



2024년 2월 5일, 환자 김모씨(48)는 여동생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신장과 심장 기능 모두 안정되어 퇴원했다. 수술을 집도한 박익준 교수(이식혈관외과)는 "환자가 수술 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04

류영욱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 취임



제36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류영욱 교수(57, 피부과)가 2024년 1월 24일 취임했다. 신임 류영욱 동산병원장은 1991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토마스제퍼슨대학 피부과에서 연수했으며, 계명대 동산병원 진료부원장, 응급의료센터장, 연구부장, 계명대 의과대학 교무연구 부학장을 역임했다.

06

'후원인 감사의 밤' 행사 개최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지난해 12월 9일 동산병원 행사대강당에서 '후원인 감사의 밤'을 개최 성료했다. '후원인 감사의 밤' 행사는 계명대 동산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준 후원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08

계명대 동산병원서 세쌍둥이 탄생, 산모 전치태반 등 어려움 이기고 남아 3명 건강히 출산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2024년 3월 15일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임신 33주 2일 만에 태어난 세쌍둥이는 첫째 1.7kg, 둘째 1.94kg, 셋째 1.58kg의 몸무게로 모두 남자 아이다. 산모는 임신 30주를 지나며 제왕절개 중 출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치태반 진단을 받아 하이브리드 수술인 일시적 자궁동맥 차단술을 계획했고 출산 후, 건강하게 퇴원했다. 한편, 계명대 동산병원은 전국 최초로 산과 하이브리드 수술을 시행했으며 환자와 신생아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5

계명대 동산병원,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본격화



계명대 동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는 계명대 동산병원은 3월 8일 참여 전문의 명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07

계명대 동산병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계명대 동산병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번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귀한 생활이다. 전대호, 이혜진 동문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기부는 보상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자 기부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의 나침반이다.

전대호 관현악과 92학번

이혜진 관현악과 96학번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대호 대표 계명대 관현악과 92학번으로 학사 취득 후 예술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김천시립예술단 교향악단 단무장까지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현재는 ㈜금조물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혜진 여사 계명대 관현악과 96학번으로, 김천시립예술단 교향악단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경북 구미혜당학교 '혜당품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가르치며, 다수의 경연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는 등 돋보이는 음악 실력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모빌리티캠퍼스 조성을 위해 조성기금 2천만 원을 약정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기부를 결심하셨나요?

얼마 전 기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빌리티캠퍼스를 조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문으로써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30년 만에 모교를 방문해 그동안 학교가 발전한 모습을 보니 계명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학부 때는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에 불과했는데, 어느새 신일희 총장님과 대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Q. 대표님께서서는 직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셨네요.

2018년, 직원 한 명과 함께 ㈜금조물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 처음에는 막막했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10년을 일하면서 안정적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유는 사업을 통해 세상을 더 이롭게, 더 나누고 베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6년 만에 250억을 달성했는데,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게 되니,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Q. 평소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모토가 '벌어서 남 주자'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만 하더라도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혼자만 잘 먹고 잘사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난, 폭력, 전쟁 등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를 밝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부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Q. 선뜻 기부에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처지의 누군가를 작게나마 도움으로서 뿌듯함을 얻는 일은 분명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부한다는 건 자신을,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아닐까요?

Q. 계명대학교가 1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립대학교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계명대학교가 저희의 모교라서 자랑스롭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후학 양성을 통해 세계적인 학교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빌리티캠퍼스 조성기금 모금 안내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및 모빌리티캠퍼스 출범 기념

“지켜온 125년의 큰빛, 비상할 125년의 계명” 비전의 길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조성기금 모금 안내

계명대학교는 2024년 1월 31일 대구시 5대 신산업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명대학교 달성캠퍼스를 모빌리티캠퍼스로 조성하기로 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모빌리티캠퍼스에는 향후 7년간 교육동, 연구동, 기업복합공간동 등 복합동과 UAM Vertiport를 구축해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대학을 설립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학과, 모빌리티 소재부품학과, 항공물류학과, 철도학과·융합전공 운영으로 실전형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상주 재학생 규모를 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창립 125주년을 맞이한 계명대학교는 선교사들과 독자들의 나눔과 섬김, 봉사와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125년간 지역에 큰 빛을 지켜왔습니다. 미래에 더욱 비상할 125년을 준비하고 있는 계명대학교는 '모빌리티캠퍼스'를 조성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모금 목적

- 우리 대학교 창립 125주년을 기념,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초석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빌리티캠퍼스 조성 기금 마련
-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대학교로서의 발전과 차세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위한 기금 마련

■ 모금 단위

1구좌(1,250,000원) 이상(분할납부 가능)

■ 모금 참여 방법

약정서 작성 후 제출

■ 문의처

대외홍보팀 발전기금 담당자 (053-580-6323, 6322)

기부자의 뜻에 배를 더하다

계명더하기 장학기금 모금

2021년 8월 계명대학교는 기부금액에 매칭장학금 100%를 더해 기부자 명의의 장학기금으로 운용되는 '계명더하기 장학기금'을 신설하여, 기부자의 뜻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1. 최소 장학기금 기부액 : 5천만 원 이상

2. 학교 장학기금 매칭 시기

- 일시납부 : 기부금 입금 후 1개월 이내
- 분할납부 : 회차별 분할 납부금액 1천만 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 회차별 입금 후 1개월 이내
- 장기(1년 이상) 분할납부 등 : 기부 약정금액 완납 시점 기준 1개월 이내

3. 장학기금 용도 :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4. 장학기금 운용 : 장학기금 완납 후 이자수익금으로 장학금 지급

계명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2021년도 개정 예우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예우내용	구분	1백만 원 이상	사랑		진리		계명비사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총장명의 감사패 또는 기부증서		●	●	●	●	●	●	●	●
학교달력 발송	기부증서	●	●	●	●	●	●	●	●
학교소식지 발송		●	●	●	●	●	●	●	●
기념품 증정(기부 약정시)		●	●	●	●	●	●	●	●
도서관 이용 혜택 (도서열람 및 대출)		●	●	●	●	●	●	●	●
교육비 감면	계명시민교육원 (비학위과정)		50%	50%	50%	50%	100% (무료)	100% (무료)	100% (무료)
	특수대학원		30%	30%	30%	30%	100% (무료)	100% (무료)	100% (무료)
	외국어학당 수강료		10%	30%	30%	30%	100% (무료)	100% (무료)	100% (무료)
학교시설 이용 시 감면			●	●	●	●	●	●	●
명절선물(설, 추석)		●	●	●	●	●	●	●	●
동산의료원 이용 혜택 (본인,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일반)		50% 할인	1회	1회	2회	3회	5회	연1회 (평생)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30%할인			100%할인 (무료)	
무료주차등록			●	●	●	●	●	●	●
장학기금 명칭 부여			●	●	●	●	●	●	●
강의실 명명							●	●	●
강당 및 홀 명명								●	●
건물 명명									●

※ 상기 예우기준은 기부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전·현직 교직원 기부자의 동산의료원, 학교 교육비 및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예우는 교직원 감면을 우선 적용

문의 : 대외홍보팀(053-580-6323)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을 기부(약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뜻을 존중하여 대학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납부기간 : 2023. 9. 1. ~ 2024. 2. 29.

재직 교직원	오십만 원 이상 백만 원 미만	박희준 배정우 배창범 배헌균 백가흠 변명환 변성준 사공창호 서정수 석재혁 손리사 송형석 신동익 신상훈 신지숙 신진교 김기태 김난희 김남영 김도형 김동욱 김명남 김명수 김배환 김백철 김봉수 김선정 김성완 김숙찬 김승원 김승철 김영미 김영석 김영철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공중보건학과 김영화 김원호 김윤곤 김윤미 김윤민 김윤희 김인순 김정규 김정길 김종수 김중호 김학운 김항매 노백호 박경욱 박성태 박세진 박소영 박종만 박주식 박주혁 박주홍 박준태 박진욱 공중보건학과 박철웅	조석현 조영식 조현정 지용호 찬경수 천호재 최두선 최두혁 최명숙 최원석 최여담 최이규 최인섭 최정도 최정화 최종호 추동혁 하지연 한여동 허정윤 호광수 홍보윤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Ebrahim, Nasser Bulaale Hong, Victor Sukbong Liu, Hao MacLean, Stanley Stephen Redondo Bonet, Lucas Schopf, James Christopher 강동우 강영화 강태원 고성철 구보소 구슬아 권순철 권우윤 권지훈 김경호 김경희 김광협 김기협 김동하 김무중 김민숙 김병선 김보라 김상희 김선이 김성열 김성은 김성현 김성환 김수형 김순자	김신혜 김영배 김영신 김영찬 김영희 김인규 김주욱 김준호 김지영 학술정보지원팀 김지현 김진명 김창섭 김종이 김호 남궁현 문근중 박성열 박성호 박소연 박애자 박영호 박장춘 박종영 박진석 박진우 박진욱 생태조경학과 박찬호 박창모 박종순 변재웅 서미정 서봉호 서재훈 서정남 송근유 신민혜 신성아 신형준 안용호 양성혜 엄우용 오복시내 오세연 오창우 우영욱 우재영 유문기 유병환 유승열 윤성환 윤재우 이상영 이상철 이선창 이성욱	이승근 이승욱 이신우 이영숙 학술정보지원팀 이윤석 이은영 이정복 이준재 이태희 이현미 이해정 이호택 이희선 이화진 장경희 장기선 장병국 장태욱 전병오 정경훈 정연호 정정용 정준호 정지용 정진화 정철중 정치훈 정해준 조수현 주성현 진미숙 채연정 천우광 천창억 최경주 최보라 최성근 최성희 최영찬 최은영 최은정 최을한 최인선 최현주 최형석 탁진영 하정철 하지원 한경임 한병진 허경미 홍순희 황은령	김문영 김봉섭 김상우 김성연 김세진 김익운 김영하 김은성 김원진 김은민 김재현 김정현 김주규 김준우 김진철 김진현 김태영 김보정 김현석 김희란 김희연 김희일 남희은 노상훈 도영철 류명선 류수정 문성화 민승기 박경희 박기준 박민수 박병훈 박수호 박윤숙 박정근 박정훈 박종섭 박지범 박진현 박홍익 박홍일 배대일 서미숙 서영준 서영호 서창범 선주형 손대호 손우영 송윤욱 신상수 신재영 신희원 심동우 안재범 안정훈 안태규	십삼만 원 미만	강미숙 강혜림 공영미 공윤희 곽미경 성이환 손인호 손주욱 양재희 이상진 이석순 이성아 이은희 장이규 전상영 정혜숙 조상국 조용걸 차유미 허창대 홍숙 홍희숙	등문 및 재학생	천만 원 이상 오천만 원 미만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김종욱 서민기 성무환 조방제	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미만	백태운	백만 원 이상 오백만 원 미만	(주)빅웨이브에이아이 간호대학 동창회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동문회 권성욱 박건애 유이교육대학원 총동창회 윤진석 이안나 임하나 최혜은 편수장	퇴직 교직원	백만 원 이상 오백만 원 미만	김군찬 김남석	오십만 원 이상 백만 원 미만	(주)선미 권정훈 노태진 정호선 및 이영래 조규택 학생군사교육단(ROTC) 33기 동기회 황선주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곽범덕 김태준 윤성덕	삼십만 원 미만	윤정임 이광희 이기창 이명순 이민영 이상길 이상윤 이선영 이숙희 이정찬 이태분 이형균 이형식 이혜란 장봉학 장성용 전경욱 정광일 정은자 정인자 정창식 정한성 조수정 조아자 조은서 조현길 조화숙 주병선 지차남 차유미 최상연 최선미 최선정 최연숙 최영희 최윤지 최정희 최희건 한판덕 현혜정 홍성근 홍진현 황순희	유관기관	일억 원 이상	(재)유한재단 대구는행	오천만 원 이상 일억 원 미만	(재)송곡문화장학재단 (재)협림매곡문화재단 (주)경북고속 (주)구구스 영남대부 (주)신한정밀 (주)디앤씨 최금옥	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미만	(재)동일문화장학재단 (재)정수장학회 (재)화성장학문화재단 (주)케이엠에프 계명%사랑나누기 운동본부	오백만 원 이상 천만 원 미만	(재)우석문화재단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대학생 일동 광개토병원	김계성 김교연 김순형 김은하 대구평강초대교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박경원 박영숙 박재덕 서영호 스튜디오앤뉴 신부섭 신아사 이영현 제양현 주식회사 멋진인생 최봉인	오십만 원 이상 백만 원 미만	김미란 김옥자 김훈태 박재한 배헌석 윤상애 이덕우 이브센스 전은주 조태현 허영순	삼십만 원 이상 오십만 원 미만	권현준 김용근 김용석 이영희 이재우 정수정 편영식 홍영수	삼십만 원 미만	강은비 권록담 권순남 권춘자 김기령 김민지 김민호 김상현 김수현 김숙자 김정순 김정희 김중영 김진태 김태영 김현희 김형선 김효정 남영선 대구여성노동자회 도주현 라혜영 레드리본 류부영 박선희	배경희 배정희 변창호 서경애 손보경 손준호 양효진 우균화 유영민 육주원 윤수영 윤정대 의성제일교회 이금로 이동근 이동복 이선율 이승호 이양희 이원우 이은진 이인하 이재유 이정은 이준영 이진은 장인자 전혜진 정군자 정지혜 전더와 자치분권 연구소 주식회사 지구마을 농업회사법인 주유정 주재근 최수환 최순경 최영애	현물(작품) 수증	권영호 회화작품 1점(틀르주의 성 루이스) 김성열 주식 기부 김양동 작품 37점(근원 김양동 기증 작품전 전시작품) 김민철 주식 기부 박세진 주식 기부 이시욱 주식 기부 조광범 주식 기부 최이규 주식 기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후원은 세계를 향해 빛을 열어가는 계명대학교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 * 기금조성 동문, 기업, 기관, 교내구성원 등
- * 기금운용 장학금, 학과발전기금으로 활용

후학사랑 기금 조성

선각자들의 헌신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금의 계명대학교를 일구었습니다. 후학사랑 기금 조성으로 후학들과 학교, 학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키우고 사람을 가르치는 따뜻한 마음을 후학사랑 기금으로 일구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장학금, 학과발전기금

6·25 참전국 출신 학생 교육지원기금 조성

6·25 전쟁 발발 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계 63개국에서 병력과 의료, 물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발전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계명대학교를 찾는 6·25 참전국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6·25 참전국 출신 외국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원

계명더하기 장학기금 조성

5,000만 원 이상 장학금을 기부한 기부자의 뜻을 높여 기부금액에 100% 매칭자금을 더해 기부자 명의의 '계명더하기'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 기금 목적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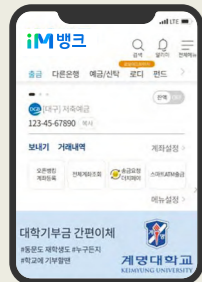
고려인 출신 학생 교육지원기금 조성

연해주에 터전을 잡았던 약 17만 5,000여 명의 고려인들은 1937년 옛 소련의 가혹한 분리·차별 정책으로 정착지에서 쫓겨나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인 강제이주를 상기하면서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려인 출신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업을 통해 고국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목적 고려인 출신 외국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학업유지비 지원

발전기금 납부방법

· 모바일 간편이체



iM뱅크 어플 다운로드 및 로그인

전체메뉴 > 이체 > 보내기 > 대학기부금이체 선택

간단 정보 및 기부금액 입력

기부금 이체 완료

- **직접 납부** 대외홍보팀으로 현금 직접 납부 또는 지정된 계좌로 송금
(대우은행 086-04-000434-7)
(우리은행 1006-601-275545)
- **CMS 이체** 기부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지정된 날짜(15일 또는 30일)에 자동인출
- **유상기부신탁** 계명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문 신탁증권사를 통한 기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220호 대외홍보팀

TEL 053-580-6323 FAX 053-715-2014 E-mail 70270@kmu.ac.kr Homepage http://funds.kmu.ac.kr/funds/index.do

TABULA RASA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좋은 사람으로 들어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자’는
교육 가치를 기반으로 올해 창립 125주년을 맞이한 계명

계명의 진정한 본질과 나아갈 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 희년(禧年)을 더 거쳐야 할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계명만의 특별한 얼굴을
가지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초상화는

“백지(Tabula Rasa)”로 남아 있을 것이다

창립 125주년 특집호



지켜온 125년의 큰빛
비상할 125년의 계명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